
해외견문체득훈련 결과보고서

2024. 06.

팀장: 기획감사실 미래기획팀 백인규

팀원: 스마트도시사업부 스마트도시팀 이영록

2024년 해외전문체득훈련 결과보고

튀르키예팀 해외전문체득훈련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합니다.

□ 활동 개요 및 주요 성과

《 활동 개요 》

- 훈련 기간: 2024. 06. 02. ~ 06. 13. (9박 11일)
- 견문 지역: 튀르키예
- 훈련참여자: 일반9급 백인규, 일반9급 이영록

- 교통혼잡도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운영
 - 트램, 페리, 돌무쉬, 지하철(철도) 버스, 택시 등
 - 해저 터널을 이용한 획기적인 이동 시간 단축
 - 고객 편의 증진을 통한 대중교통의 이용 촉진
- 지리적 이점에 따른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
 - 문화자원(왕궁, 모스크) 및 자연환경(파묵칼레)를 활용한 관광도시개발
 - 지역교통수단(열기구)을 활용한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 자연경관과 지역 특색에 맞는 교통 노선 운영

□ 향후 계획

- 인천-서울을 잇는 주요 통행로인 부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관리시스템 마련
-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주요추진사업 개발 및 제언

I**해외전문체득훈련 일자별 내용 및 시사점****【1일차】**

- 인천공항 - 이스탄불공항 이동 (비행시간 11시간 30분)
 - 숙소 도착 (Akka Suites Hotel) : 22시30분(현지 시각)

【2일차】

- 이스탄불 카라콰이 지역(갈라타 탑-갈라타 다리) 방문
 - 갈라타 탑은 터키 이스탄불 갈라타/카라콰이 지구에 위치한 중세시대의 석제 탑으로 과거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화재 및 기상관측 등 도시 관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전망대 및 레스토랑이 위치하여 이스탄불 최고의 뷰포인트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갈라타 다리는 이스탄불의 변화가인 카라콰이 지역과 역사적인 관광명소인 에미뇌뉘 지역(구시가지)을 연결하는 다리로 차량 및 트램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유동인구가 많아 다리를 기준으로 지역 상권이 발달해 있다.

【3일차】

- 돌체바흐체 궁전 방문
 - 돌체바흐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티브로 삼아 지어진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 제국 말기에는 술탄들이 사용했으며 공화국 시대에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로 사용되었다.
 - 작은 만을 메우고 곳곳에 정원을 조성해 '가득 찬 정원(돌마바흐체, Dolmabahçe)'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곳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어 '바다 위의 궁전'이라고도 불리며, 궁전이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독특한 모습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의 포토 스팟으로 인기 있다.

○ 카도쿄이(구시가지) 지역 방문

-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오른쪽인 아시아 지역에 자리한 항구 도시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통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4일차]

○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방문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로 평가받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모스크 안 벽면을 온통 뒤덮은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도시 자체로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에서도 특히 유서 깊은 건축물 중 하나로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가 전쟁에서 패배한 뒤, 제국의 번영을 위해 1609년 건축을 지시하여 1616년 완공되었다.

○ 이스탄불공항 - 데니즐리공항 이동 (비행시간 2시간)

- 숙소 도착 (Laodikya Hotel) : 22시(현지 시각)

○ (이스탄불) 주요 견학성과 및 시사점

-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로 지역 간 이동을 바다 위를 건너야 한다는 점 때문에 도시 내외의 교통 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탄불은 '마르마라이 철도'와 '페리'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마르마라이(Marmaray)는 튀르키예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2013년에 개통된 중요한 철도 노선으로 가장 큰 특징은 해저 터널을 이용하여 두 대륙 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점이다. 도시의 교통 혼잡도 개선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대륙을 오가는 통근

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스탄불의 주요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각 역은 다른 이동 수단으로 환승하는 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페리는 이스탄불 내에 물 위 이동이라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여객 페리, 고속 페리, 차량 운반용 페리(Car ferry)로 구분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관광 명소와도 연결되어 보스포러스 해협을 크루즈처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Kadikoy 페리 선착장 및 페리 내부

【5일차】

○ 파묵칼레 방문

- '목화의 성'이라는 이름의 파묵칼레는 천연 온천과 화려한 석회암 지형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겸한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고대 로마 스파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와 인접하여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다양한 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니밴'돌무쉬'를 운영하고 있다.

○ 데니즐리 - 안탈리아 (버스 이동시간 6시간)

- 숙소 도착 (Just Inn City Hotel) : 23시(현지 시각)

○ (데니즐리) 주요 견학 성과 및 시사점

- 고대에는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한 무역의 중심지였던 데니즐리는 중세에 들어 그 중요도가 저하되어 작은 소도시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직물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과 히에라폴리스 등의 고대 유적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현재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대도시가 되었다.

【6일차】

○ 하드리아누스의 문 및 안탈리야 도시역사전시관 방문

- 탈리아의 랜드마크인 하드리아누스의 문은 130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안탈라 방문을 기념하여 세운 문으로, 지금까지 안탈리아의 구시가지로 통하는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 안탈리아 도시역사전시관은 로마의 해군기지이자 국제무역항으로 시작된 안탈리아의 역사를 한곳에 전시해놓은 장소로 도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 등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 (안탈리아) 주요 견학성과 및 시사점

- 안탈리아는 튀르키예의 해안 도시로 여름철 휴양객이 고속버스를 통해 많이 방문한다. 튀르키예의 버스 터미널을 지칭하는 **오토가르(Otogar)**는 각 도시마다 위치해 있는데 주요 도시의 오토가르는 하루 수백 대의 버스가 오갈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중 '이스탄불-안탈리아'라인은 지중해 노선으로 여름철 인기가 높다.
-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예약은 Obilet, Neredenneye, Biletall 등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버스 운송사 구별 없이 통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소 터키어, 영어, 아랍어 등 5개 국어를 지원하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간편하게 예약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7일차】

- 안탈리아 - 카파도키아 (비행시간 2시간)
 - 숙소 도착 (Azalea Terrace Hotel) : 13시(현지 시각)

- 로즈밸리계곡 방문
 - 로즈밸리는 화산 폭발 당시 형성된 응회암 바위들이 자리한 광활한 협곡으로 '장미 계곡(Rose Valley)'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 질 녘, 협곡 바위들의 색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풍경을 보여준다.
 - 험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교통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낙타 투어, 말 투어, ATV 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다.

【8일차】

-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
 - 카파도키아 괴레메 지역은 화산의 영향으로 기암괴석이 즐비한 천혜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형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 일 년 내내 안정적인 온난 상승기류를 유지하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열기구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9일차】

- 데린쿠유 지하도시 방문
 - 데린쿠유 지하도는 깊이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도시로 종교 박해를 피해 온 그리스도교인들이 숨어들어살았으며 최대 5만 명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지하도는 내부 통로와 환기구가 지하 각층으로 연결돼 있고 구역을 나눠 연기 배출을 위해 상층부에 부역을 두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최하층에 다른 지하 도시로의 비밀통로를 연결하는 등 정교한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되었다.

○ 셀리메 수도원 방문

-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큰 수도원으로, 동로마 제국 시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고자 '으홀라라 계곡' 끝자락에 자리한 바위산을 깎아 만들어졌으며 8세기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예배당과 주방, 홀, 터널 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 (카파도키아) 주요 견학성과 및 시사점

- 괴레메 지역은 도시의 환경적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로 과거에는 농작과 축농이 어려운 척박한 암석지대 환경을 극복하고자 절벽에 사는 비둘기의 변을 거름으로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돌산의 내부를 깎아 주거지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 현대에 와서는 자연경관과 과거 주거지역이었던 동굴을 호텔 및 관광지로 변경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켰고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특성에 맞춰 셔틀 등을 운영하는 운송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걸림돌인 교통문제를 해결했다.

【10~11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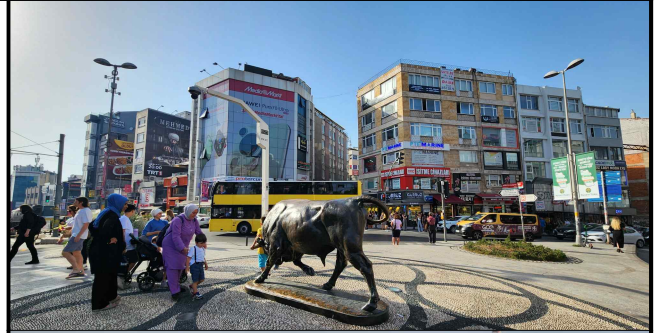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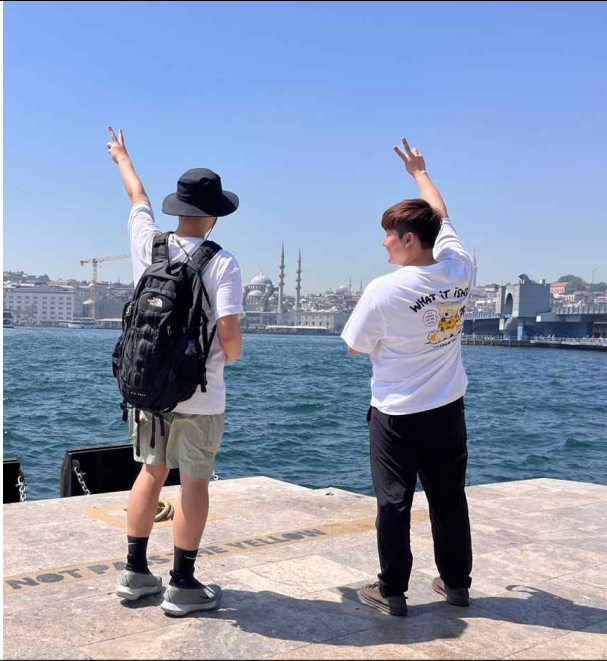
- 네브세히르 공항 - 이스탄불공항 - 인천공항 이동
(비행시간 합계 12시간 30분)
- 네브세히르 공항 출발 : 12일 15시 30분(현지 시각)
- 인천공항 도착 : 13일 13시 30분(한국 시각)

【그랜드바자르 방문】 6월 3일 (월)



- 백인규 : 이스탄불의 그랜드바자르는 부천역 지하도상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부천역 지하도상가에 비하여 구역별로 주요 판매 품목을 나누어 배치하고 이를 방문객들에게 팸플릿 등을 통해 가이드하여 원하는 물건을 찾기 쉽도록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는 점이였다.
- 이영록 : 오전과 오후 두 번 이곳을 방문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주차장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신에 이스탄불 트램 T1 노선이 메인 입구에 정차하여, 차량 없이도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 함께 첨부한 공유 키포드 지정 주차 구역 사진은 이곳을 찾는 인파가 많음을 대변해 준다.

【카도쿄이 방문】 6월 4일 (화)



- 백인규 : 카도쿄이 지역은 원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 내에서 주요 기능을 신도심과 원도심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한화 약 800원) 페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설계한 점이 인상 깊었다.
- 이영록 :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편리했던 것은 여러 대중교통 이동 수단이 있음에도 카르트 하나로 결제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해협 횡단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웠다. 방문했던 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사람이 많았는데, 배차 간격이 짧아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다. 돌아갈 땐 페리를 이용했는데,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 도시경관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괴레메 방문】 6월 9일 (일)



- 백인규 : 지형적 불리함으로 튀르키예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도시였던 괴레메 지역은 이러한 단점을 강점으로 치환하고자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발달시켰고 그 결과, 튀르키예 내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중 하나로 발돋움하였는다는 점이 감탄스러웠다.
- 이영록 : 이 지역은 확실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이스탄불같은 편한 이동은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소유인 숙박시설 또한 거주 중인 집을 전환하는 것 외에 짓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지역특색과 유적 보존을 위함이라는 점, 지역주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따르는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